

濟州島方言「있다」活用考

姜 根 保

一 目 次

I 序	(3) [si]
1. 序 言	2. {si}의 活用과 {-suda}系 語尾
2. 活用語尾의 形態類型	(1) {-si}
II 本 論	(2) {-sə}
1. 語幹의 形態交替	(3) {-sintwi}
(1) [isi]	III 結 言
(2) [iti]	

I 序

1. 序 言

方言의 特殊性은 形態的으로 語形의 交替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特히 濟州島方言의 活用形에서는 陸地語에서 찾을 수 없는 語尾形態가 許多하여 상호간 距離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指摘되는 것이다.¹⁾ 그리고 李朝中期以前의 文獻語(以下 文獻語)가 濟州島方言(以下 方言)에서는 音韻은 물론이려니와 形態에서도 同一하게 維持되고 있는 語形들이 不少한 것인데 本考에서 다루려는 「있다」도 이에 該當한다. 卽 現代國語에서 使用하는 形용사 「있다」(存在)가 文獻語에서는 “시니” “이시니”의 交替形을 보이고 있음은 主지의 事實이다. 그런데 方言에서도 역시 같은 交替形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그 活用形은 機能과 語意가 多樣하게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있다」의 方言形인 「있다」에 對하여 그 語幹交替形을 抽出하여 諸形들이 나타나는 環境을 밝히고 文獻語와의 共通性和 類似點을 찾아서 方言의 特色이 무엇인가를 課題로 하여 캐내려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있다」의 活用形에서 機能의 變化한 양상과 用法을 記述하여 文獻語와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에 對한 管見을 아울러 叙述하고자 한다.

1)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攷 서울 1960 P. 312

2. 活用語尾의 類型

方言의 活用語尾를 本考의 展開를 爲한 資料와 그 對立相을 들추어 내기 爲하여 {-쿠다}(-khuda)系 活用語尾, {-수다}(-suda)系 活用語尾, {-우다}(-uda)系 活用語尾, {-마씀}(masswm)系 活用語尾의 四型으로 類別한다. 그런데 그 類別은 語幹에 後行하는 語尾形態의 音을 中心으로 하고, 方言의 特色이 드러나는 語尾部分을 내세워 類型의 名稱으로 삼았다. 또한 語尾는 動詞, 形容詞에 두루 活用하늘 것을 추려 記述한 것으로 方言의 語尾를 網羅한 것은 아니다. (本論에서의 必要에서 轉寫音을 並記한다)

(1) {-khuda}系 活用語尾

語幹 +	{	아(a)/어(ə)	}	+	{	카(kha)	}	+	{	푸다, -푸넨, -부다, -부매
		아(a)/어(ə) + 시(si)/지(ci)				커(khə)				커라, -ㄴ가.
		아(a)/어(ə) + ㅁ(m) + 시(si)				코(kho)				_____
		이(i)/으(w)				쿠(khu)				다, -가, -강, -광.
					크(khw)				라.
		키(khi)	여, -엔, -여게, -엿							

(2) {-suda}系 活用語尾

語幹 +	{	아(a)/어(ə) + ㅁ(m)	}	+	{	사(sa)	}	+	{	주, -게
		여(jə) + ㅁ(m)				서(sə)				게, -고, -ㄴ게, -ㅇ게
		으(w)				소(so)				다, -이다, -이까
		아(a)/어(ə)				수(su)				다, -가, -강, -광.
		여(jə)				셔(sjə)				썬
					썬(ssun)				_____
						시(si)				냐
						시(si)				니
						시(si)				라
						시(si)				난
	시(si)	ㄴ가.								
	시(si)	ㄴ되, ㄴ매.								
	시(si)	ㄴ결								

시 (si)	민, -口
시 (si)	남주, -남서
시 (si)	ㅇ계
시 (si)	르되
시 (si)	어

(3) {-uda}系 活用語尾

語幹+	$\left\{ \begin{array}{l} \text{아(a) + 口(m)} \\ \text{으(w) + 口(m)} \\ \text{이(i) + 口(m)} \\ \text{.....} \end{array} \right\} + / \text{이(i)}$	$\left\{ \begin{array}{l} \text{우(u)} \\ \text{우(u)} \\ \text{우(u)} \\ \text{.....} \end{array} \right\}$	다	(-냐, -메, -주, -순, -니, -나, -그네, -계, -꾸나, -자, -다, - 다니, -더니, -지, -꼬, -니다, - 네다
			짱	
			팡	
			라	

(4) {-masswm}系 語尾

終結語尾 (-카, -계, -까, -키엔, -가, -나, -멘, -아, -어) +마씀
 連結語尾 (-아, -어, -여, -안, -언, -연, -앙, -영, -영, -싯되, -계, -강, -
 명, -렌, -거, -멘, -젠, -젠) +마씀.

II 本 論

1. 語幹의 形態交替

存在의 語意를 가진 형용사「있다」의 方言 用例를 上揭한 語尾의 類型에 따라 代入시키면
 {-khuda}系 活用: 시카(sikha)~이시카, 시카부덴(sikhapuden)~이시카부덴, 시커라(sikhər
 (~이시커라, 시쿠다(sikhuda)~이시쿠다 시키여(sikhijə)~이시키여.....etc.
 {-suda}系 活用: 싯수다(sitsuda)~잇수다, 싯주(sitcu)~잇주, 싯계(sitke)~잇계, 시어(sie)
 ~이서, 싯쑤(sitssun)~잇쑤,etc
 {-uda}系 活用: 시우다(siuda)~(잇우다), 시냐(sinja)~이시냐, 싯다(sitta)~잇다, 시 나
 (sikkuna)~잇구나, 싯저(sitcə)~잇저.....etc
 {-masswm}系: 시카마씀(sikhamasswm)~이시카마씀, 시어마씀(sieᄇmasswm)~이서마씀, 시

렌(siren)~이시렌. 싯젠(sitcen)~잇젠.etc

{-khuda}系の活用에서는 {si}~{isi}의 兩形의 語幹이 並存하고 있고

{-suda}系の活用에서 {sit}~{it}의 兩形이다. 그리고 {-uda}系の活用에서는 {sit}~{it}~{si}等 三形을 抽出할 수 있는데, 이들을 同一 形態끼리 묶으면 「있다」의 方言形 語幹은 {isi}, {it}, {si}, {sit}의 交替形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하나의 語意를 表現하는 語形이 多様な 交替形을 가지게 되는 이 語幹은 用例에서와 같이 語尾의 類型에 따라 그 形態를 달리하고 있고 또한 어떤 類의 語尾에서는 先行할 수 없는 音의 連結條件을 가지는 등 特性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 交替形 차례로 살펴 나아가기로 한다.

(1) 語 幹 {isi}

{isi}語幹이 나타나는 環境을 活用에서 알아보면

語幹 {isi} +	口니다	(-m-nida)	(있읍니다)
	口네다	(-m-neda)	(")
	버서	(-P-sə)	(계십시오)
	ㅇ게	(Ø-ke)	(있구나)
	냐	(-nja)	(있느냐)
	난	(-nan)	(있으니까)
	르지	(-l-ci)	(있을지)
	ㄴ되	(-n-twi)	(있는데)
	니	(-ni)	(있으니)
	ㄴ가	(-n-ka)	(있는가)
	메	(me)	(있으니까)
	카	(kha)	(있을까)
	쿠다	(khuda)	(있겠읍니다)
	쿠가	(khuka)	(있겠읍니까)
	커라	(khəra)	(있겠다)
	운	(un)	(있느냐)
어	(ə)	(있느냐)	

{isi}는 /m/, /p/, /n/, /l/, /kh/, /ə/, /u/, /θ/만을 後續音으로 取하고 다른 音은 後續할 수가 없는 語形임을 나타내고 있다. 卽 {isi} + 주(cu)는 “잇주” “싯주”로 使用되고, {isi} + 고(ko)는 “잇고” “싯고(식고)” {isi} + 다(ta)는 “잇다” “싯다”로만 可能하고 “이시주” “이시

고” “이시다”로는 쓰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語形上으로 보아 /m/ /n/ 등을 後續音으로 하는 活用形 “이시니” “이시메” 등은 “있이니” “있이메”로 그 構造를 分析할 수 있을 것 같아 [isi]는 語幹이라 하기가 疑問스러운 것이다. 더우거나 語간末子音이 /s/으로 끝나는 [it]과 類似한 語形의 活用에서 보면

있다(續)

이시카 (이올까) 이실테민 (이올터이면)

이시난 (이오니까) 이십시다 (이옵시다)

이시라 (이어라) 이실네 (이으려나)

웃다(笑)

우시카 (웃을까) 우십니다 (웃옵니다)

우시난 (웃을까) 우섭나 (웃고있나)

우시라 (웃으니까) 우시니 (웃으니)

우실테민 (웃어라)

와 같이 “있다”(續), “웃다”(笑)가 /n/, /l/, /m/ 등과 連結되는 것으로 보아 [isi]의 活用에서 連結되는 條件과 같다. 다만 -이 語形들이 共通語(標準語)에서는 媒介母音 /w/를 取하나 方言形에서는 /i/로만 나타나고, 있다(續)는 /s/ 變格이나, 역시 方言에서는 /s/音을 維持하고 있는 差異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類의 用言으로 “짓다”(作)가 共通語에서는 變格이나 方言에서는 “지시카” “지시난” “지시멘”으로 活用하고, “없다”는 /p/音이 脫落되어 “어시카”(없을까) “어시메”(없으니까)로 活用하고 있다. 以上 例로 보아서 語幹末子音이 /s/音으로 끝나는 用言이 活用할 때 共通語에 나타나는 媒介母音 /w/는 方言에서 /i/로 나타나며 /s/變格인 用言은 /s/音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w/ 母音이 前舌母音化는 위에서와 같이 現代語와 方言間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李朝의 文獻語와 方言間에서도 顯著함을 볼 수 있다.

ㄱ술 →가술 ~ㅁ실

유즈 →유자 ~유지

ㄷ술 →마술 ~ㅁ실

가즈 →가지 ~가지

손즈 →손자 ~손지

아스 →아우 ~아시

아즈반이 →아주버님 ~아지바님

아즈머님 →아주머님 ~아지마님

名詞의 例가 許多하나 用言의 어간과 活用어미에서도 “sw, zw→si”의 例를 찾을 수 있다.

비스다 (비스다)→바수다 (부수다)~뻬시다

그스다 →꼴다~꼬시다

수스다 (수스다) →들레다~수시다

거스리다~거스리다~거시다 (거실다)

위 名詞의 例에서 第二音節 母音은 /v/→/w/~/i/의 變化를 거쳤고 用言에서도 /v/→/u/~/i/, /v/→/i/→/i/, /v/→/w/~/i/의 變化를 한 것이다. 따라서 方言形 {isini}는 그 第二音節 母音이 /v/→/w/~/i/의 變化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語形은 “이스니→이스니→이시니”의 變化로 說明될 것이며 {isini}의 어간은 {it}(잇)이라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드는 李朝初期의 文獻語에는 周知하는 事實이지만 {isini}의 方言的 用法이 그 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在 念 이실 씨라 (月印釋譜序10)

有 念 이실 씨라 (訓民正音註解本)

가리라 흐리 이시니 (龍飛御天歌45章)

내지뵈 이싫저귀 (釋譜詳節6:7)

和尙이 갖가뵈 이셔 (釋譜詳節6:7)

有情은 邑 이쇼매 (月印釋譜13:17)

沃野애 이시면 (初刊杜詩諺解9:21)

위 文獻語의 例와 方言 {isini}의 語例를 並記하면

이실 씨 : 이실 사람

이시니 : 이시니

이싫적 : 이싫적

이셔 : 시어, 셔

이쇼매 : 이시면

文獻語와 方言사이에는 語尾의 機能에 따라 語意의 差는 보이나 後續音은 同一계열의 음을 가진다. 卽 {isi}에 後續된 음은 母音 /ə/, /o/와 /n/ /l/ /m/이다. 다만 語尾 類型에 提示한 바와 같이 {-khuda}系 활용어미가 方言形에 限하여 {isi}+{-khuda}처럼 連結되는 것만이 兩形間에 差異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獨自의인 發達이란 特色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文獻語와 方言에서 {isi}는 語形이 同--하고, 활용에서 後續音의 連結이 一致하며, 「存在」의 語意가 不變한 것으로 보아 前述한 媒介母音의 /v/→/w/~/i/ 變化現象을 가지고서 方言에서 使用하는 {isini}의 形成이 {잇+이니}로 說明되지 않는 것이라 처음 疑問은 解明된 것이다. 卽 文獻語의 /v/모음은 方言에서 /i/母音으로 變化하였으나 文獻語의 /i/모음은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보아 語幹 {isi}는 /n/, /m/ /ʈ/ /r.l/, /ə/, /o/, /u/, /p/, /kh/에 先行하는 語幹으로서 李朝初期의 語形을 維持하고 後續음에 따라 交替形을 가지는데 特徵이 있다.

(2) 語 幹 {it}

앞에서는 {isi}語幹이 後續음과의 連結關係와 文獻語의 維持 等に 對하여 省略음으로 다음의 使用例를 通하여 {it}과 {isi}와의 形態的인 示差를 中心으로 그 用法을 밝혀 나가기로 하겠다.

- 있다그네 가라 (있다 가라)
- 잇당 가라 (있다가 가라)
- ㅁ마니 잇자 (가만히 있지)
- 洞內 잇주 (洞內에 있겠지)
- 잇겐 ㅎ여라 (있을 것이라 하더라)
- 잇건 오랭허라 (있거든 오라 해라)
- 잇넌 ㅎ더다 (있을 것이라 합디다)
- 어디 잇수강 (어디 있습니까)
- 집의 잇수다 (집에 있습니까)
- 어디 잇쑤 (어디 있소)
- 어디 잇소이까 (어디 있습니까)
- 집의 잇삼네다 (집에 있습니까)
- 집의 잇손 (집에 있소)

위 例로 보아 語幹 {it}에 後續될 수 있는 음은 /k/, /t/, /s/, /c/, /n/음이다. 이 음 가운데 어간 {isi}에 連結하는 음은 /n/뿐이며 나머지는 連結이 아니 되는 음이다.

- 이시다 그네 (X)
- 이시수다 (X)
- 이시주 (X)
- 이시넌 ㅎ더다 (X)
- 이시난 (O)

따라서 {isi}와 {it}과의 語幹交替는 後續音의 分布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isi}+ /k/, /n/, /t/, /s/, /c/의 경우 第二音節 母音 /i/의 脫落으로 {it}이 形成된 것이다.

李朝初 文獻語에서도 脫落形 {it}의 用例를 찾을 수 있음은 {isi}語幹이 方言에서 殘存하는 事實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서리 양즈 마즈이 있거뇨. (釋譜詳節6:13)

부터를 맞나 잇느니 (釋譜詳節6:11)

훈말도 음후야 잇더시니 (釋譜詳節6:7)

여기서도 方言形 {it}에 後續하는 音인 /k/, /n/, /t/이 나타나고 있으며 共通語에서 前攝한 “웃다”(笑) “잇다”(續), “엇다”(無), “짓다”(作) 등 語간末이 /s/음으로 끝나는 用言이 모음의 介입없이 同一한 後續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보아 {it}語幹은 方言과 文獻語에 두루 나타나는 語形으로 {isi}語幹과 並存하면서도 後續音을 달리한다. 卽 배타적 分布로서 {it}은 {isi}의 變異形態인 것이다.

(3) 語 幹 {si}

이제까지 語幹 {isi}와 {it}은 頭音이 同一함으로 活用形에서 後續音의 連結關係를 主로 說明 것이다. 그러나 {si}語幹은 음의 分布를 달리함으로 여기서는 先行音과 後續音과를 例示하 여 {isi} {si}語간과의 交替 要因을 살피기로 하는 것이다.

가인 집의 시냐? (그 애는 집에 있느냐)

집의 시수다. (집에 있습니다)

늘랑 싯당 가라. (너는 있다가 가라)

사람 신가 강 보라. (사람이 있는가 가아 보아라)

돈은 싯더 말더 모르키여.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어디사 싯더 모르키여. (어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아니간 방에 시카. (어디 아니가서 방에 있을까)

난 방에 시쿠다. (나는 방에 있겠다)

돈도 하영 싯수다. (싯소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싯주. (사람 있네)

하영 시메 (많이 있으니까)

훗셜 ㅁ마니 시라 (잠깐 가만히 있으라)

집의 싯티야 (집에 있겠느냐)

그딕 사람 시여 (거기 사람이 있는가)

집 싯 년아 집 자랑 말라²⁾ (집 있는 년들 집 자랑 말라)

밭 싯 년아 밭 자랑 말라 (밭 있는 년들 밭 자랑 말라)

이 절에도 수룩 드렁 덕이 싯니까 (이 절에도 공을 드리면 덕이 있습니까)

이 절에도 덕은 싯진 싯 모양이우다³⁾ (이 절에도 덕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든 예는 語尾 類型에 따라 {-khuda}系, {-suda}系, {-uda}系 活用語尾에서 {si}의 使

2)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서울 1965 P. 19

3) 秦聖麒 南國의 巫歌 濟州 1968 P. 303

用例를 고루 추려낸 것이다. 이제 後續音과의 分布關係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語幹 {si} +	라	(ra)	(있어라)
	마	(ma)	(있지)
	냐	(nja)	(있느냐)
	난	(nan)	(있으니까)
	우다	(uda)	(있읍니다)
	여	(jə)	(있어)
	카	(kha)	(있을까)
	쿠다	(khuda)	(있겠읍니다)
	ㅅ당	(s-taḏ)	(있다가)
	ㅅ수다	(s-suda)	(있읍니다)
	ㅅ소다	(s-soda)	(")
	ㅂ주	(p-cu)	(있읍니다)
	ㄴ가	(n-ka)	(있는가)
	ㄴ까	(l-kka)	(있을까)
	ㄴ되, ㄴ데	(n-twi, n-te)	(있는데) (있는곳이)

{si} 語幹은 後續音의 區分에 依하여 {sil}, {sip}, {sin}, {sis(t)}, {si}로 나타나는 데 그 各形에 後續되는 音은

{sil} + /k/, /kk/, /t/, /n/, /l/

{sip} + /s/, /n/, /c/

{sin} + /k/, /t/, /n/

{sit(s)} + /k/, /t/, /n/, /s/, /c/

{si} + /kh/, /n/, /r, l/, /m/, /u/, /jə/

無聲音系를 後續音으로 하는 {sil}, {sip}, {sin}, {sit}과 有聲音系를 後續音으로 하는 {si} 語幹으로 區分할 수 있고, {-khuda}系 語尾가 {si} 語幹에만 後續되는 語形의 特徵을 가져 兩區分을 더욱 確然케 하고 있다. 그리고 後續音이 이와 같이 區分되는 各形의 差를 보면 無聲音系의 {sil}은 未來形, {sin}은 過去形, {sip}은 敬語法으로 使用하고, {sit}은 現在時로 機能的인 意味에 따라 各各 {l}, {p}, {n}, {s}이 添加된 것이다. 또한 有聲音系에 先行하는 {si}는 用例에서와 같이 그 時相이 現在를 나타내는 用法이다. 따라서 語간 {si}와 {sit}은 同一 時相을 가지고 있으면서 後續音이 다를 때 語形이 各各 다르게 나타나는 形態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 後續音을 共通語와 對比하면 媒介母音을 가지게 되는 環境일 때 方言에서는 {si} 語幹을 使用하고 子音

과 連結될 경우 {sit}語幹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으로 보아 {si}와 {sit}의 關係는 前述한 {isi}와 {it}의 關係와 一致한다.

即 {isi}, {si}는 敬語法的 /p/을 除外하고는 有聲音이 後續되고, {it}, {sit}은 無聲音이 後續되는 것이나 /n/音은 兩形에 모두 後續한다.

그러면 同一한 機能과 音의 連結를 가지는 {isi}와 {si}의 語形上의 差異를 가지게 하는 要因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기로 하겠다. 文献의 用例에서

마르니 시며 (楞嚴經彙解10:14)

와 같이 先行語末音이 /i/로 끝나는 경우에 {isi}의 첫 母音 /i/의 脫落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⁴⁾ 語形에 差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方言形에서는 앞에 例示한 {si}의 先行語末音의 /n/, /wi/, /a/, /ɔ/, /m/, /i/, /e/ 등으로 나타나며 이 音들은 語幹 {isi}, {it}에도 先行되고 있다. 그러니 이 兩形은 後續音과 先行語末音이 다 같은 形이기 때문에 그 區分이 어려우나 다음의 例에 있어서는 {isi}의 /i/脫落을 暗示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시나	감시나
먹어신가	먹엄신가
흥여시난	흥엄시난
와시네	와엄네
놀아시나	놀엄시나
드라시카	드람시쿠다
주어시쿠다	주엄시쿠다

여기서 {ka—si—nja}(갓느냐), {ka—m—si—nja}(가고 있느냐)의 {-si—nja}語尾形態와 {si}語幹의 活用形 (si—nja)(있는가)와는 形態가 同一하고 또한 {-si}語尾形態의 起源的인 發達로 미루어 {isi}語幹의 脫落現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即 上記 例에서와 같이 {-si}語尾形態가 나타나는 環境은 /a/, /ə/, /jə/, /m/을 先行音으로 하고 있으니 앞에 提示했던 用例의 先行語末音과를 함께 配列하여 보면

先行音 : /a/, /ə/, /jə/, /a/+m/, /ə+m/, /jə+m/

先行語末音 : /a/, /e/, /i/, /wi/, /ɔ/, /m/, /n/

으로서 先行한 音은 /a/, /m/을 共通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文献語의 /i/先行語末音을 가진 事實과 方言의 用例에서 主格 {-i}의 省略되는 경우 {-si}가 나타나는 用法에서 <빋신 년아, 옷신 년아⁵⁾>의 [i]음은 함께 先行語末音으로 /i/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文献語에서

4) 安秉禧 「韓國語發達史中」 韓國文化史大系 V P.201 서울 1967

5) 金榮教 ibid P.19

가지 늑죽 **했**도다(杜詩諺解廿51)
 조차 득놀 사르미 **그**쳤도다(// 廿3)
 건坤에 **빚**겄더라(// 八6)

{it}이 **출**어서⁶⁾ “**했**” “**쳤**” “**겄**”으로 됨은 /a/+{isi}→{asi}, /ə/+{isi}→{əsi}와 같이 되는 方言現象과 類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方言의 {si}語幹은 /a/, /ə/, /i/, /m/을 先行音으로 가졌을 때 {isi}語幹의 語頭母音 /i/가 脫落된 語幹形態라 할 것이다. 그러나 共通語의 勢力은 {isi}, {si}, {sit}, {it}語幹의 使用에 混亂을 가져오게 함과 아울러 {it}으로 代替케 하고 있다.

以上 (1)(2)(3)에 걸쳐 살핀 바를 整理하기로 한다.

語幹{isi}+後續音(/n/, /r,l/, /ʈ/, /m/, /ə/, /o/, /p/, /kh/)

語幹{it}+後續音(/k/, /c/, /n/, /t/, /s/)

先行音(/a/, /ə/, /i/, /m/+語幹{si}+後續音(/n/, /r,l/, /ʈ/, /m/, /ə/, /o/, /p/, /kh/)

語幹{sit}+後續音(/k/, /c/, /n/, /t/)

2. 語幹{si}와 {-suda}系 語尾

前述한 바와 같이 後續音은 有聲音과 {-khuda}系 語尾를 가지고 /a/, /ə/, /m/, /i/ 母音을 先行音으로 하는 {si}語幹은 活用形에서 文法的인 機能과 意味를 달리하는 語尾들이 있다. 그래서 {si}+{-suda}系 語尾에서 추려낸 {si-nja}, {si-ə}, {isjə}, {sin-twi}에 對하여 살피기로 하겠다.

(1) {si-nja}, {si-nje}

{si-nja}는 {it}의 交替形 語幹 {si}+疑問法 語尾 {nja}의 構成으로 그 語意는 “있느냐”에 該當한다. 그리고 {si-nje}는 語尾가 終結形 肯定法으로 “있어요”에 가까운 語意를 가지고 있다. 이제 例를 들어 機能과 語意를 밝힌다.

는 혼자 시나 (너는 혼자 있느냐)
 집원 사람 시나 (집에는 사람이 있는가)
 아인 어떡 시니 (아이는 어떡 있지)
 자인 집의 시네 (저 애는 집에 있다)
 그딴 책이 시네 (거기 책이 있어요)

위의 例와 같이 {si-nja}, {si-nje}는 語幹{si}의 活用이다. 그런데 同形인 {-si-nja}, {-si-nje}가 語尾形態로서 나타난다.

는 혼자 가시냐 (너는 혼자 갔느냐)

6) 李崇寧 中世國語文法 서울 1961. P. 278

집원 누계 사람이네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펜당 사람 시네 (친족이 살고 있어요)

하영 자바시네 (많이 잡았네)

서울 가시네 (서울 갔어요)

“語幹+{-sinja}, {sinje}”의 {-si-}는 過去와 現在完了相을 나타내는 語尾形態로 語幹 {si}와 形態의 同一할 뿐 아니라 語意에 있어서도 共通點을 찾아낼 수가 있다. 卽 “가시네”(갔네), “자바시네”(잡았네)는 “가서 있다” “잡아서 있다”의 語意로서 모두 過去에 行한 動作이 그 狀態대로 現在 있느냐는 發話 意圖로 原來 받아들였던 것이라 본다. 이러한 例로

도새기 잡아시냐 강 보저 (돼지를 잡았는가 가아 보겠다)

다 잡아시메 강 봅서 (다 잡았으니 가 보시오)

“잡아시메”는 “잡았다” “잡아있다”의 두가지 狀態를 包含한 것이다. 따라서 {si-nje}의 時相은 現在完了와 過去를 나타내는데 對話의 場面에서 意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si}가 “語幹/a/, -ə/, +{-si-}+{-ta}”의 境遇에는 李朝初 文獻語의 “했다” 처럼 短縮하지 않고 /i/만 脫落하여 {-s(t)-ta}가 남는다. 그래서 “잡아시네”의 語形은 “잡았다”로, “가아시네”의 語形은 “가았다”로 형성되면서 時相도 /i/音의 脫落으로 存在의 語意가 흐려짐에 따라 現在의 狀態가 흐려져 過去形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方言에서 “語幹/a/ /ə/ +{s-}”인 {-at}, {-ət-}과 後發音이 /n/인 경우에는 語幹 {si}가 虛辭化한 語尾 {-si-}가 過去形으로 쓰여지고 있다.

(2) {si-ə}, {is-ə}

共通語의 “있어” “있느냐”에 該當하는 말에 方言에서는 “語幹 {si}+疑問法, 肯定法語尾, 副詞形語尾{-ə}의 構成으로 된 {si-ə}와 語幹 {isi}에 역시 같은 機能의 語尾인 {-ə}의 結合으로 된 {is-ə}가 있다.

가인 어디 시어 (그 애는 어디 있느냐)

어디 아니 간 이서 (어데 가지 않고 있다)

돈이 어디 시어 (돈이 어디 있느냐)

ஹ살 이서 보라 (조금 있어 보아라)

위 例에서 語尾{-ə}는 上昇調인 경우 疑問法으로 使用되고 下降調인 경우는 肯定法으로 使用된다.

그런데 “있느냐”의 뜻을 가진 {si-ə} {is-ə}가 “名詞+{is-ə}”의 構成으로 되면 “있다”의 語意는 內在하고 機能은 在格으로 된다. 이 때 {is-ə}에서 /i/ 脫落된 {-sə}와 {si-ə}의 短縮

7) 李崇寧 ibid P. 205

形인 {-sə}는 兩形이 두루 쓰인다.

집의서 무시거 ㅎ염시니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혹교서 와서냐 (학교에서 왔는가)

개맞되서 완수다 (海邊에서 오고 있습니다)

陸地서 완 사람수다 (陸地에서 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의서”의 {-sə}는 “집에 있으면서”의 語意를 가지고 있고 “혹교서” “陸地서”의 {-sə}는 “에 있다가”의 語意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sə}는 在格과⁸⁾ 離格으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在格과 離格으로 {-sə}는 그 機能을 달리하나 역시 “存在”의 語意를 維持함은 勿論 後續音을 同一하게 가진다.

집의서랑 ㄷ지말라 (집에서는 이야기 말라)

집의선 놀라 (집에서는 놀아라)

혹교선 책 이그라 (학교에서는 책을 읽이라)

혹교서랑 가닥말라 (학교서 작란 말라)

例示한 {-sə-n}은 “{-sə}+主題格{-n}” {-sə+raD}은 “{-sə+}+主題格機能{-raD}”으로 兩形 모두 格을 後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用言이 格語尾로 쓰여지는 例로 動詞「르다」(말하다)를 들 수 있다.

날ㄴ라 ㄴ르라 (나에게 이야기하라)

넌ㄴ라 ㄴ람시냐 (너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가)

성ㄴ란 ㄴ지 말라 (兄에게는 말하지 말라)

넌ㄴ르랑 ㄴ리주마 (너에게는 말해주마)

“날ㄴ라”의 {-kɔra}는 ㄷ變則動詞 “르다”의 副詞形이다. 이것이 名詞나 代名詞에 붙어 與格의 구실을 하는 後置詞⁹⁾ {-에게}의 方言形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kɔran}은 主題格 {-n}을, {kɔraraD}은 主題格 機能의 {-raD}을 後續시키고 있어 {sə+n}, {sə+raD}과 一致한다.

이로써 語幹 {si}의 活用形 {sə}는 在格과 離格의 구실을 하는 {-sə}로 發達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3) {si-n-twi}

{si-n-twi}는 語幹 {si}의 冠形詞形 {si-n}에 場所의 不完全名詞 {twi}가 連結한 語形으로

8) 李崇寧 ibid P. 146

9) “ ” P. 152

서 그 語意는 “있는 곳”이 된다. 그리고 {twi}는 {te}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난 가이 신티 모르키여 (나는 그애 있는 곳을 모르겠다)

가이 신티 어디고 (그애 있는 곳은 어디냐)

사람 신티 첫장 가라 (사람 있는 곳을 찾아서 가라)

가네 신티 강 보라 (그 애가 있는 곳에 가아 보아라)

위의 {si-n-twi}는 모두 있는 場所의 뜻으로 使用된 例이지만은 {한테}, {에게}와 混用의 可能性도 있을 듯하다.

그 사람 신티 가라 (그사람 있는 데로 가라), (그 사람한테 가라)

삼촌 신티 물어보라 (三寸 계신티를 물어보라), (三寸에게 물어보라)

성 신티 마르라 (兄 있는 데를 말해라), (兄에게 말해라)

그러나 言語의 場面에 따른 區分으로 “있는데”와 “에게” “한테”가 語意把握에 어려움을 가져 오지는 않은 것으로 이러한 用法으로 보아 {si-n-twi}는 與格의 구실을 하는 {-si-n-twi}와 語形이 並存하는 셈이다.

以上과 같은 {-si-n-twi}의 用法은 文獻語의 後置詞 “-손디”型¹⁰⁾과 그 機能이 酷似함을 나타내고 있다.

네 뉘손디 글 비혼다 (老乞大諺解上2)

無學손디 비호는 사르미미 (釋譜詳節十三3)

모든 아주미손디 드르니 (內訓二27)

例의 “-손디”는 與格的 구실을 하는데서 機能的으로 {-si-n-twi}와 一致하고 後續하는 不完全名詞 “디”의 連結이 同--하다. 또한 “손”과 {-si-n}의 형태도 類似하나 다만 方言 {-si-n-twi}는 형용사 {si} 語幹의 活用形에서 變化한 것으로 文獻語의 “있다”(存在)의 活用과는 다르며

이슈메 (月印釋譜8 : 30)

이슈미쑤녀 (月印釋譜21 : 16)

이쇼본 (釋譜詳節19 : 28)

이쇼라 (杜詩諺解1 : 24)

이쇼디 (月印釋譜8 : 34)

슈물 (楞嚴經諺解8 : 30)

와 같이 “이시+오/우” “시+오/우”의 構成으로 “-손디”의 “-손”과도 距離가 있다. 그러나 方言에서 오/우 母音이 插入된 用法을 보면

이수다~있수다 : {is-uda}~{its--uda}

10) 李崇寧 ibid P. 147

시수다~잇수다 : {sis-uda}~{sits~uda}

이순~잇순 {is-un}~{iss-un}

이손~잇손 {is-on}~{iss-on}

와 같이 /su/, /so/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方言의 現象으로 推定이 可能하다면 文獻語의 손뉘는 {isi}의 交替形인 “{it(s)}+O/n+뉘”의 形式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Ⅱ 結 言

以上에서 叙述한 바를 要約해서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1. 濟州方言의 活用語尾를 音의 分布를 中心으로 하여 {-khuda}系, {-uda}系, {-suda}系 등으로 區分하고 이 活用語尾에 따라 形容詞 {it-ta}의 方言形 {it}의 活用表를 만든 結果 各 音韻 環境이 다른데서 그 語幹은 {isi}, {si}, {it}, {sit}의 四形으로 나타난다.

(1) {isi}語幹은 isimnida, iso, isinan, isilci, isjə, isikha, isip 등의 例와 같이 /n/, /r, l/, /m/, /a/, /o/, /p/, /kh/에 先行하는 語幹形態이다.

(2) {it}語幹은 /k/, /n/, /s/, /c/, /t/을 後續音으로 하는 連結이 可能하고 /r, l/ /m/과 母音될 때는 {isi}語幹으로 交替된다. 即 {isi}語幹의 後續音으로 /k/, /t/이 올 때 {isi}의 末母音 /i/가 脫落되고 語形이 줄어들어 {it}으로 된다.

(3) {si}語幹은 {isi}語幹이 先行音으로 /a/, /ə/, /jə/, /i/, /m/을 가지고, 後續音으로 /r, l/, /n/, /m/, /ʈ/, /kh/, /ə/, /o/, /p/을 가질 경우 {isi}의 第一音節 母音이 脫落된 것이다.

그리고 {si}+無聲音{k, t, c}일 경우에 {si}는 {sit}으로 나타난다.

2. {si} 語幹은 活用形과 語幹이 機能의 變化를 한다.

(1) 方言에서는 過去形 語尾로 {ka-si-nija}, {ka-sinje}의 {-si}와 {ka-s(t)-ta} {məkə-s(t)-ta}의 {-s(t)-ta}가 쓰이는 데 兩形이 모두 語幹 {si}로부터 轉化한 것이다.

(2) 共通語에서 it-nwnja에 該當하는 말에 方言에서는 {si-ə} {isə}가 있는데 名詞에 連結하여 在格 구실의 後置詞로 된다.

(3) 與格 구실의 後置詞로 使用하는 {sin-twi}는 語幹 {si}의 冠形詞形 {sin}과 不안전名詞 {twi}, {te}의 結合으로, 文獻語의 “이손뉘”의 用法과 形態가 類似하다. 그래서 “이손뉘”는 {it}語幹의 活用形으로 부터 派生된 것이 아닌가 한다.

參 考 文 獻

- 1) 李崇寧 國語學論攷 서울 1960
- 2) * 中世國語文法 서울 1961
- 3) * 國語學研究 大邱 1972
- 4) 金亨奎 國語史研究 서울 1962
- 5) 許 雄 官語學概說 서울 1963
- 6) * 龍飛御天歌 서울 1956
- 7)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1961
- 8) 劉昌惇 國語變遷史 서울 1961
- 9)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V 서울 1967
- 10) 李崇寧 國語音韻論研究 第一集「·」音攷 서울 1954
- 11) 玄平孝 濟州島方言 研究 第一輯 資料編 1962

—Summary—

A Study on Inflection of Jeju Dialect “Be : Being,,

Kang keun-bo

1. In this study I divided the inflections of Jeju dialect into -khuda, -uda, and -suda systems, and according to those inflections made up an inflections table of adjective *it-ta*, as the result of that those stems appear four types as follows : *isi*, *it*, *si*, and *sit*.

(1) The sounds n, r, l, m, ʎ, ə, o, p, kh are preceded by the connecting condition of the sound that a stem *isi* shows.

(2) The sounds k, n, t, s, c are preceded by a stem *it* and the stem *it* is changed into *isi* in case that the sounds r, l, m, and vowel are preceded by the stem *it*.

(3) The sounds n, r, l, m, ʎ, ə, o, p, kh are preceded by a stem *si*, and the sounds a, ə, i, jə, m are followed by the stem *si*. And in the case that the stem *si* is followed by the sounds k, n, t, s, c, the stem *si* is changed into a stem *sit*.

2. A stem *si* loses the work of an inflective word.

(1) *si isə* and *a /ə* are used as inflections of past form in dialect : the former is that of *ka-si-nJa?*(went?), *ka-sinie* (went), the latter is that of *ka-t-ta* (went), *məkə-t-ta* (ate), both forms are changed in all from a stem *si*.

(2) *s:ə isə* which are inflection form of a stem *si* showing Interrogative affirmation are used as adressive case in connecting to nouns.

(3) A pre-noun (in Korean) form (unconjugation adjective) *sin* of a stem *si* and *sin-twi* which is composed of connection of an incomplete noun-*twi*, *-te* show a dative as a postposition. And *sin-twi* is similar to the word-*son-twi* of the Yi Dynasty in fifteenth century in usage and form. So I consider that *son-twi* is changed into inflection of a stem *it*.